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욕망에 빠진 세 여자

대하드라마 '자이언트'

"3色의 여자 활약 기대하세요"

"그동안 했던 건강하고 밝은 역할과 달리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성장해 욕망을 표출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SBS 창사 20주년 대하드라마 '자이언트'에서 황정연 역을 맡아 시대극에 도전하는 배우 박진희는 SBS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시대극이 주는 에너지에 어우러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진희는 "요즘은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성이 소비의 주체가 되기도 했지만 1970~1980년대는 성장하기 바빴던 시대였고 남자들의 목소리가 훨씬 컸다"며 "시대극이 처음이어서 긴장을 많이 했지만 다른 연기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편해졌다"고 덧붙였다.

박진희가 맡은 황정연은 중앙정보부의 비호 아래 성장한 만보건설 황태섭 회장의 딸이다. 어릴 적부터 계모와 이복 오빠의 구박에도 당당했던 그는 자본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일찌감치 깨닫고 야망을 키워 만보건설의 후계자가 된다.

하지만 정연은 동업자에게 회사를 빼앗기고 홀로서기에 성공해 제3금융권의 대모로 성장한다.

박진희는 "차갑고 냉정한 인물을 해 본 적이 없어 고민이 많았다"며 "말수도 줄었고 잘 안 웃게 된다"고 전했다.

'지붕뚫고 하이킥'으로 큰 인기를 끈 황정음은 아버지 친구의 배신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고 형제들과 뿔뿔이 흩어지지만, 한강건설을 창업해 성공하는 주인공 강모(이범수)의 여동생 미주 역을 맡았다.

미주는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인 조필연(정보석)의 아들 민우(주상욱)와 사랑에 빠져 그의 아이를 갖게 된다. 하지만 아기를 지우라는 조필연의 협박을 피해 몰래 아이를 낳고 은막의 스타로 성공해 오빠 강모와 함께 민우를 몰락으로 몰아간다.

황정음은 "정극 연기는 네 번째지만 그동안은 연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어려웠다. 나이도 어리고 연애를 하다 보니 집중을 잘 안했던 것 같다"며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생각하니 연기에 대한 생각도 절실해지고 결과가 잘 나와서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은 항상 있지만,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잘되는 건 아니니 부담보다 조금 더 큰 자신감으로 하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정연의 생모로, 밀실 정치가 이뤄지는 사교클럽의 사장이 된 유경옥 역의 김서형은 "결혼도 안 했는데 성인의 어머니로 나오는 게 부담이 돼서 처음엔 못하겠다고 했다"며 말했다.

김서형은 "경옥은 정연과의 모녀 관계는 다 지난 일로 생각하는 인물이고, 밀실 정치가 벌어지는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그런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나이를 가늠할 수 없다고 들어서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게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박진희

"욕망의 캐릭터 굉장히 매력적"

황정음

"연기 집중하니 자신감 생겼다"

김서형

"아직 미혼인데 어머니역 부담"

남성듀오 '바이브' 이달중순 4집 발표

남성듀오 바이브(류재현·윤민수)가 이달 중순 4집을 발표한다.

바이브는 지난 2006년 낸 3집에서 '그 남자, 그 여자'와 '술이야' 등이 히트하며 3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한 이후 군 대체복무에 임했고, 4년여 만에 신보를 내게 됐다.

총 18트랙으로 구성된 4집에는 두 멤버가 90% 이상의 곡 작업을 했다. 빅마마의 이지영과 이영현, 포맨이 피처링에 참여했다. 최근 타이틀곡을 확정했으며 마무리 녹음 및 뮤직비디오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웃음에 빠진 한 남자

'국가가 부른다' 김상경

"로맨틱 코미디로 웃겨 드리죠"

"촬영장에서 너무 웃겨서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연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신하는데 정말 많이 웃으실 겁니다."

배우 김상경은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KBS 2TV '국가가 부른다'의 제작발표회에서 만난 김상경은 "그간 영화에서는 풀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드라마에서는 '대왕세종' 등 주로 딱딱한 이미지를 보여드렸다"면서 "그런 역할도 나름대로 행복했지만 이번 역은 중간에 성격이 바뀌는 입체적인 인물이라 재미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국가가 부른다'는 원칙주의자인 엘리트 정보국 요원 고진혁과 사고뭉치 생계형 비리 여순경 오하나(이수경 분)가 우연히 마약 수사에 공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김상경은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융통성 제로의 정보국 요원 고진혁 역을 맡았다. 고진혁은 처음에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오하나 때문이라고 오해하다가, 반대로 그 친구를 이용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그는 "철두철미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며 "고진혁이 서서히 변화해가는 과정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김상경은 '국가가 부른다'라는 제목이 긴장감을 주는데, 사실 드라마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말했다.

"수사극이긴 하지만 시청자가 편안하게 웃으며 보실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난해 KBS 미니시리즈 극본 공모 당선작이다.

김상경은 "대본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었던 적이 별로 없는데 이 드라마는 확실히 새롭다. 막 웃게 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웃음이 터진다. 20대의 신인 작가인데 역량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본을 읽으면서 역할 하나하나에 '이 배우가 하면 어떨까'하고 상상하면서 봤는데, 현장에 와보니 그 사람들이 다 캐스팅됐더라고요. 깜짝 놀랐고, 분명히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신신애 선배님이 '웃을 수 있는 '아이리스'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고진혁이 진지하게 수사하는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오하나와 벌어지는 다양한 해프닝이 같이 가고 있어 액션, 멜로, 코미디가 모두 담긴 종합선물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